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6(土)	17(日)
 흐림 18 / 26℃	 구름많음 18 / 27℃

News

- 中, 무안 기업도시 투자 ②
- 대학가 커피의 진화 ③
- 중앙·상원고 무등기 8강 18

Jeollado

- 그사람·배종열 前전농위원장 ⑦



Entertainment

- 대형가수 잇단 광주공연 ⑧
- 총무로 여성군단 총동원 ⑨

Books

- 시간의 놀라운 발견 ⑩
- 여성 욕망 궤멸은 돈 주양 ⑪

Wellbeing

- 식품 탐구-체리 ⑬



Trend & Style

- 컬러 농산물이 뜬다 ⑭

노인복지 공동체 장흥 유치 '신선의 집'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인 '신선의 집'에서 노인들이 떡 재료로 쓰일 자연산 모시잎을 따고 있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장흥=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청정 자연속 무공해 생활 “몸도 마음도 언제나 천국”

“청정 자연 속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 마음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해발 400m 고지에 자리 잡은 노인주거 복지시설 '신선의 집'. 이곳에는 그동안 의지할 데 없이 소외돼 온 무의탁 노인들이 한 데 모여 유기농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며 건강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비록 자녀와 가족은 없지만 한결같이 밝은 표정들이다.

이 곳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71세부터 93세까지 모두 28명(남 8명, 여 20명), 평균 연령은 75세다. 사회 복지사 3명을 비롯 간호사, 조리사, 위생원, 생활지도사 등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무의탁 노인 28명 유기농산물 재배

하루 일과는 명상으로 시작된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후 1시간여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갖고 생활체조와 요가를 한 뒤 천연 유기농 식단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오전 7시부터는 모시잎과 쪽잎 등 떡 재료 손질 작업에 나선다. 이들이 따들은 떡 재료는 영광지역의 떡집에 납품된다. 여기에서 얻은 연간 수익금 1천200여만원은 시설 운영비로 충당된다. 채소 등 무공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기도 한다.

점심 식사 후 오후 4시 반까지 노인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오후 8시엔 어김없이 2인 1실의 잠자리에 들어간다. 어찌 보면 딱딱하고 고된 일정이지만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백현기(여·72)씨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은 뒤 이 곳에 들어와 무공해 농산물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흠과 함께 건강·젊음 되찾았어요”

나광순(92)씨도 “매일 소일거리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며 “자연속에서 흠과 함께 지내다 보니 더욱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거들었다.

'신선의 집'은 지난 1996년 40여 년간 교역에 몰입해 온 오해선씨가 설립해 2000년 11월 노인주거 복지시설인 '한농 노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사랑의 경쟁, 희생의 경쟁, 봉사 경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노인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동안 조립식 건물에서 지내오다 지난해 말에는 복지부 지원금 2억5천만원과 기부금 1억5000만원을 들여 137평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했다.

사회복지사인 계획건(61) 원장은 “어르신들이 여생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드리고 싶다”며 “하지만 아직 보일러실과 주방, 농산물 저장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끝내 파업으로 가나

조합원 투표 정의행위 돌입 결정 ‘투쟁성’ 강한 금속노조로 전환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정의행위와 함께 화학섬유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산별노조 전환가입을 전격적으로 결정,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5일 “14·15일 이틀간 실시한 ‘2007 임투 승리를 위한 정의행위와 산별노조 전환 찬반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4천49명 가운데 3천169명(82.1%)이 정의행위 돌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2천813명(72.9%)이 찬성, 가결됐다.

노조는 임금 9% 인상, 2006년 추가 성과급 요구 및 2007년 성과급 제시, 충고용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8일 광의대회위원회를 열어 파업의 수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19일 회사측과 일간협에 대한 조정을 거쳐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금속노조 광주지부 금호타이어지부’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로의 전환과 관련, 노조 관계자는 “해외공장이 늘면서 광주·

곡성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최근 중앙연구소의 경기도 이전 등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쟁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섬유에서 금속노조로 산별전환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99년 이후 매년 파업을 벌여 5천억여원의 직·간접 매출손실을 봤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298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8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7.7% 상승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닥시장이 지수 800선을 넘어서고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했고, 새로운 수준으로 지수가 레벨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7.59포인트 상승하며 800.61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도 102조1천878억원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

코스닥 100조 시대 지수도 800선 돌파

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3.08포인트 올라 1772.26을 기록,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가 800선을 돌파한

것은 2002년 4월 810.20을 기록한 이후 5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수 흐름이 코스닥 증시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시장의 장래를 대체로 낙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760선을 넘어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16명 또 탈당...우리당 반토막

3년만에 의석수 73석으로...사실상 와해 수준

원외인 열린우리당 정대철 고문과 문화상 전 의장, 문학진 의원 등 의원 16명이 15일 집단탈당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 23명, 지난 8월 임종석, 우상호 의원 등 16명에 이어 세번째 집단 탈당이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전체의석(299석)의 과반수인 152석에 달했던 우리당 의석 수는 73석으로 줄면서 3년만에 반토막났으며 우리당은 사실상 당 와해 수준에 접어들었다.

정대철 고문 등 1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민주당

혁신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대통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누군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광야에 나가 대통합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면서 “사실 없이 대통합의 용광로에 저희들의 몸을 던지겠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선언에는 문화상, 김덕규, 이미경, 이석현, 강성종, 김우남, 문학진, 박기춘, 신학용, 심재덕, 이기우, 이영호, 이원영, 정봉주, 최성, 한광원 등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탈당그룹은 이미 탈당해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대통합 탈당파’ 28명(초·재선 16명+민생정치모임

+이강래·전병헌 그룹+김근태+김희선)과 결합, 시민사회 세력 및 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상대로 벌여온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18~20일께 정동영 전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추가 집단 탈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통합 탈당파와 신당 및 민주당 간에 벌여온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원학원 학약 6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콜보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콜보스 1588-5051 ▶ T.(061) 360-5000

신동의 심장-비타민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918-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비타민씨

THE KOREA'S Most Admired COMPANY

유한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 Star 3위 (제약부문 1위)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비타민씨

비타민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

